

콜옵션 자산양수로 종료 분식 회계 논란 끝낼까

삼바·바이오젠과 바이오에피스 공동 경영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체결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관련 자산양수도 가 마무리 된다. 양사가 실제 콜옵션 행사로 공동경영 체제에 돌입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커졌다.

◆부채비율 절반으로 줄어들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 922만6068주를 7일 양도하고, 바이오젠은 인수주식에 대한 금액과 이자를 합쳐 총 약 7595억원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은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합작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면서,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50% - 1주'까지 양수할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 6월 29일 바이오젠은 콜옵션을 행사했다. 이번 주식 양수도가 끝나고 나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바이오젠의 지분율은 기존 5.4%에서 49.9%로 올라가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현재 재무제표상에 반영된 대각예정자산(약 2조2478억 원)과 과생상품부채(약 1조9336억 원)는 삭제되고, 2018년 4분기에는 관계기업처분의 약 4413억원이 영업외이익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또 바이오젠의 콜옵션 비용 지급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지난 6월말 기준 약 4779억에 서 1조 2374억

원으로 증가하고 부채비율은 94.6%에서 42.6%까지 감소한다.

◆분식회계 논란 잠재울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도 끝날지 관심이 모인다.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에 대비해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했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측 주장이 근거를 찾았기 때문이다.

분식회계 논란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하면서 시작했다. 당시 관계사 전환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가치가 5조원 규모로 재평가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규모 수익을 낸 것이 문제가 됐다.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재감리를 통해 바이오젠과 합작설립한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가 아니라 관계회사로 인식해야 했다며 '회계처리 위반 중과실'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여부는 알지 못한 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은 '고의적 분식회계'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회사측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가 유럽에서 판매 승인을 받으면서 기업 가치가 극대화

됐고,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 행사가격보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가치가 훨씬 큰 값은 내가격 상태에 접어들었다"며 "국제회계 기준(IFRS) 규정에 따라 시장가치로 지분을 재평가해야 했기 때문에 2015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전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2012년 설립 당시의 회계처리를 문제삼고 있어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콜옵션 행사로 자산양수도가 모두 마무리 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관계사 전환 논리는 사실상 성립이 됐다"며 "하지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설립 초기부터 회계처리에 대한 문제를 다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결론을 번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증권위는 지난달 3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조치안에 대해 재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오는 14일 정례회의를 통해 재논의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cou.co.kr



지점 줄이는 국내은행 지점 늘리는 글로벌은행

비대면 채널 확산 대응전략 극과극

국내의 은행들의 움직임이 엇갈리고 있다.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이 강화되는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 같지만 대응은 달랐다.

국내 은행들은 디지털 뱅킹을 강화하는 동시에 오프라인 지점은 발빠르게 없애고 있다. 금융당국까지 나서서 제동을 걸고 있지만 은행들의 지점 통폐합은 가속화하는 상황이다.

반면 글로벌 은행은 오히려 지점을 확대하고, 고객과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 중이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해 반기보고서 기준으로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지점수는 3098개다. 지난 2015년 3513개에서 2016년 3333개, 2017년 3124개로 최근 3년새 400개가 넘는 지점이 사라졌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인터넷 뱅킹의 보급과 함께 은행 지점의 역할 축소와 폐지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제기됐고, 모든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도 등장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미 지점이나 인력 운영 방안은 은행의 가장 큰 고민이 된 상황"이라며 "지점을 전반적으로 없애기보다 전략적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만 지점을 존속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디지털 시대를 맞았지만 글로벌 은행의 대응은 다르다.

대부분 지점은 은행 경영에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인식하고, 영



<4대 시중은행 지점 수 추이>

구분	2018년 6월	2017년	2016년	2015년
국민	905	924	1005	1022
하나	689	696	785	853
우리	766	765	780	872
신한	738	739	763	796
합계	3098	3124	3333	3513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업 확장을 위해 신규 지점을 개설하거나 디지털기술과 접목해 최첨단 형태로 리모델링하는 방식이다.

JP모간은 올해 초 미국 내 400개 지점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필라델피아, 텔러웨이 등 JP모간이 약세인 지역에 50개의 지점을 설립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오하이오, 신시내티 등 신규 시장에 향후 4년간 500개의 새로운 지점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500개의 기존 지점 위치를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구조로 다시 디자인할 계획이다.

씨티는 지점 숫자는 줄였지만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이 태블릿 PC로 장구를 떠나 직접 상담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탈리아의 케반카의 경우 디지털 전용 은행으로 시작했지만 고객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교통요지에 50개의 지점을 설립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국제금융센터 강정현 연구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복잡한 금융거래나 재무설계 등이 필요한 고령층과 고액자산가, 자영업자 등의 지점 선호를 확인할 수 있다"며 "아직까지 대부분의 고객에게는 은행 업무를 지점에서 하는 것은 당연하고 다른 플랫폼으로 대체할 수 없는 업무도 여전히 있다"고 설명했다.

지점이 사라지기 보다는 디지털 기술과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접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 연구원은 "지점은 미래에도 은행의 주요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겠지만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는 개혁과 효율화가 필수"라며 "은행 브랜드를 반영한 물리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온라인, 모바일, 오프라인 어느 플랫폼으로 접근하든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동일한 고객 서비스를 향유하도록 지점을 오픈 채널의 일부로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가을은 '신규폰'의 계절... 삼성·LG 이어 애플·화웨이까지

갤노트9, 국내 100만대 돌파 V40 씽큐, 카메라 5개 탑재 6.5인치 '아이폰XS맥스' 주목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고가의 프리미엄 제품부터 중저가 모델까지 신제품을 잇따라 선보이며 소비자의 선택지를 넓히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삼성전자, LG전자의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와 함께 애플, 화웨이, 샤오미 등 해외 업체까지 자사의 전략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9'은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달 16일 국내 판매량 100만 대를 돌파했다. 국내 출시 53일 만이다. 갤럭시노트9은 6.4인치 화면에 노란색 '스마트S펜'에 블루투스 기능을 도입한 게 특징이다. 사진을 찍을 때나 프레젠테이션



갤럭시노트9. /삼성전자



아이폰XS. /애플

을 할 때 리모컨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후면에 1200만 화소 듀얼 카메라, 전면에 8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했다. 4000mAh(밀리암페어시)의 대용량 배터리를 갖췄으며 가격은 128GB(기가바이트) 기준 109만4500원이다.

스마트폰 최초로 트리플(3개) 카메라를 탑재한 '갤럭시 A7'도

23일 출시했다. 갤럭시 A7은 6인치의 화면에 후면 2400만·500만·800만, 전면 2400만 화소의 카메라를 탑재했다.

세계 최초로 후면에 쿼드(4개) 카메라를 장착한 '갤럭시 A9'은 11월 중 전 세계에 출시 예정이다. 후면에 2400만 화소의 기본 렌즈뿐 아니라 망원 렌

즈, 초광각 렌즈, 심도 렌즈를 탑재했다.

LG전자는 지난달 24일 전·후면 5개의 카메라를 탑재한 LG V40 씽큐(ThinQ)를 출시했다. 6.4인치 대화면에 후면 1200만(표준)·1600만(초광각)·1200만(망원), 전면 800만(표준)·500만(광각) 화소의 카메라를 탑재했다.

후면의 트리플카메라를 이용한 기능이 눈에 띈다. 촬영하기 전 서로 다른 3개의 카메라로 비추는 장면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트리플 프리뷰', 셔터 한 번이면 서로 다른 렌즈로 촬영한 연속 사진과 이 사진들을 영상으로 저장하는 '트리플 샷' 등의 기능이다.

이달에는 5개 카메라를 활용한 '퀵샷' 기능이 추가된다. 후면 카메라로 다양한 화각의 사진을 한 번에 찍을 수 있을뿐 아니라 촬영하는 사람의 표정과 배경까지 담아낼 수 있다. 가격은 64GB 기

준 104만9400원이다.

애플은 아이폰X의 업그레이드 모델인 아이폰XS를 조만간 국내에 출시한다. 5.8인치 화면에 후면 1200만 화소, 전면 700만 화소의 카메라를 탑재했다. 전면엔 얼굴 인식 기능인 페이스 ID를 지원하는 3D 센싱 카메라를 넣어 얼굴 인식을 통해 스마트폰 잠금해제를 할 수 있다.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외모가 바뀌어도 인식 가능하다. 가격은 64GB 기준으로 136만4000원이다.

새롭게 등장한 라인업인 아이폰XS맥스도 주목된다. 6.5인치의 패블릿(폰+태블릿)으로 갤럭시노트9(6.4)보다 큰 화면을 갖췄다. 64GB 기준 151만8000원이다.

화웨이와 샤오미 등 중국 업체도 중저가 신제품 출시를 통해 국내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화웨이는 지난달 26일 KT를 통해 '비와이 폰 3(P20 라이트)'를 공식 출시했다. 지난 3월 출시된 플래그십 라인업 'P20 시리즈'의 보급형 버전으로 노치디자인과 페이스 잠금해제 기능 등을 담았다. 5.84인치의 화면과 3000mAh의 배터리를 제공한다. 후면 1600만·200만 화소, 전면 16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했다. 가격은 33만 원이다.

샤오미도 최근 국내에서 포코폰 F1 출시 기념회를 개최했다. 포코폰 F1은 켈릭 스냅드래곤 845, 6GB·8GB 메모리, 4000mA 등 뛰어난 하드웨어 성능을 갖췄음에도 가격은 40만원대 초반으로 예상된다. 6.18인치 화면에 후면 1200만·500만 화소 듀얼 카메라와 전면 2000만 화소 카메라를 갖췄다. 인도 시장에서 5분 만에 약 300억원의 1차 물량이 완판된 바 있다. /구서윤 기자 yun514@